

## 6월은 보광의 달

# 이기신 하나님은 영생하는 영이다

보광 1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조희성 구세주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는 일은 의미가 크다. 아직도 구세주가 왜 보광의 길을 가셨는지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한 신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생을 장담하던 구세주께서 육신을 벗어나셨으니 어찌 쉽게 보광을 이해할 수 있었는가. 승리제단 신도들은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구세주의 증표인 이슬성신이 계속 내리고 있고(이슬성신 은혜를 육안으로 보는 신도가 있고, 또한 카메라에 계속 찍히고 있다), 둘째, 구세주의 분신(分身)을 육안으로 본 신도들이 있으며, 셋째, 많은 신도들 꿈에 현몽(現夢)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면 74년간 구세주께서 입고 있었던 육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묘소에 묻혀있

는 육신은 무엇이라고 물을 수 있다. 구세주는 분신(分身)과 변신(變身)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존재라는 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구세주께서는 보광 후 이영자 총재의 꿈에 현몽(現夢)하시어 “나는 분신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변신의 역사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야. 그래서 내가 사인불인천신강(似人非人天神降)이라고 했잖아? 내가 단상에서 한 설교 말씀 당신 못 들었어?”라고 말씀하셨다. 즉 구세주의 실체는 하나님의 신(이슬성신)이라는 것이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을 희생제물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한다.

보광 11주년을 맞아 당신이 평생 기도했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거룩하고 고귀한 뜻을 모든 신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3. 5.22 대구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이슬성신은 이기신 하나님의 분신체이다)

### 이영자 총재 간증담

## “나안 죽었어.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야”



2014. 4.8. 본부제단 구역장 회의에서 내린 이슬성신 / 이승우 승사 촬영

주님께서 보광하신 후 얼마 안되어서 새벽에 주님께서 생시처럼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평소 아침 제단 나가는 시간 제단에 도착하여 주님 침무실에 들어서는데 주님께서 먼저 당신이 늘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것입니다. 소파에 앉으셔서 들어오는 저를 빙긋이 웃으시면서 쳐다보시고는 “고생이 많지? 여기 와 앉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푸념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생이고 뭐고, 아 주야, 이 일반 어디 갔다가 오셨수. 왜 자리를 비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시우? 나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서, 내가 뭘 안다고 할 만한 사람을 시킬 것이지 이게 뭐요? 내가 감방에 들어가는 것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하면서 막 쓰아부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빙긋이 웃으시면서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시면서 메모지를 내어 적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쪽 말씀드리다가 마지막에 거의 끝날 무렵 지난 주 토요일 부천남부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제단 피해자대책협의회’라는 곳에서 온 ‘이영자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라는 협박편지를 읽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편지 내용을 한참 동안 다 들어보시더니 “편지에 적혀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편

에서 서서 하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포함하고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하게 되어 있어. 마귀 편에서 있는 사람이면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중략)

그리고 부천남부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받은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아이고 나 혼났어요. 아 당신이 없어지니까 죽었다고 이렇게 진정을 한 것 아닙니까? 아 글썄, 나씨, 서씨 등 진정인들이 죽은 당신이 2006년이나 2008년도에 온다고 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다고 대검찰청에 진정을 했답니다. 허 참,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요. 아니 당신이 없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니까?” 하면서 불만 섞인 말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고 누가 그래? 나는 죽은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단상에서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 왔잖아? 나는 사람 몸을 입고 왔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이야.” (중략)

육신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으로 원시반본한 거야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시려고 일어서시려다 다시 앉으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죄관결을 받은 것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를 전부 해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듭난 완전무결한 의인이라는 의미야. 무죄관결 나게 한 것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내가 감옥을 나와서 병원에 간 것은, 죄를 담당하느라 병든 인간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나서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시반본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분신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변신의 역사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야. 그래서 내가 사인불인천신강(似人非人天神降)이라고 했잖아? 내가 단상에서 한 설교 말씀 당신 못 들었어? 내가 평소에 단에서 한 말을 잘 생각해 봐. 그리고 내가 제단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나와 같은 얼굴로 만든다고 했어.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빛으로 변할 수 없어. 당신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단에 매일 나와 열심히 예배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요. 감로 이슬성신이 항상 내리고 있어.”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신이 나서 “맞아요. 제가 3층 공장에 갔을 때 이슬이 많이 내렸어요.”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 이건 보통 꿈이 아니어서 그대로 메모를 하였다

화장실에 가셔서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셔서 또 안에서 예전처럼 피를 쏟으시나 걱정이 되어 화장실로 가서 문을 여는데 안으로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들겨도 대답이 없으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중략)

제가 일어나서 한참동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신들린 사람같이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습니다. 번뜩 정신

이 들면서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다’ 싶어 열린 꿈꾼 내용을 한참동안 정신 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수요일 본부제단에서 아침 예배를 보는데, 주님께서 꿈에서 본 그대로 옷과 넥타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 본부제단 예배 말씀 중에 내가 단에서 하는 설교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말씀이 기본이야.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책을 만들도록 하라고 했던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예배 보고 있는 그 순간이 마치 꿈에 주님을 뵈는 것 같은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승리신문 5면에 실린 내용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1, 38)

## “보광(普光)하신 주님이시여!”

이 사람은 영원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명체예요. 영원영원 전부터 살고 있는 생명체인데, 지금은 사람 몸을 빌려서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몸만 벗어 던지면 그대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냥 그대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는 사람이예요.

(2001년 8월 24일 주님 말씀 중에서)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오늘날 인간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은 때가 되면 다시 환원이 될까? 다시 환원이 되면 인간은 못 봐!

(2000년 9월 10일 말씀 중에서)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이 세상

을 뒤집어 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비밀리에 움직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해. 배신감으로 속았다고 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

(2000. 11. 7 말씀 중에서) 바로 이 공중 높은 곳에 마귀 대장이 있습니다. 그 마귀대장하고 이 사람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싸워서 마귀 대장을 죽여 버렸어요. 그 마귀대장을 죽여 버리고 사실은 이 사람의 본체는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 단상에서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하는 이 사람은 본체가 아니고 분신체입니다.\*

(2001년 10월 28일 말씀 중에서)

### 구도의 길

## 도를 닦는 구도자들이여! 당신의 구도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영생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슬은혜이다. 이슬은혜는 영생을 방해하는 마귀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기 때문이다. 마귀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 상대가 되는 이기신 하나님의 영뿐이다.

선가(禪家)에 가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와는 아무리 잘 간다고 해도 거울이 결코 될 수 없다.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나라고 하는 것(가와)이 온갖 고행과 수행을 해도 부처(거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 종교와 도(道)는 알지 못한다. 아무리 도를 닦아봐도 야인종이 훌륭한 사람의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도를 닦았다고 하는 성인군자들이 인간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이다.

그래서 하나님(부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며, 뒤집어쓴 죄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부처님)으로

거듭 나야만 인간의 차원을 벗어난 영생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죄를 뒤집어쓰신 하나님(부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는가.

조희성 승리자는 우리 인류의 희망이자 꿈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부처님)으로 거듭 난 최초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조희성 승리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는 도를 닦는 구도자들이 많이 있다. 진리를 찾아서 온갖 수행과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 구도자들. 그대들은 원하는 바 대도(大道)를 얻을 수 있는가? 착각하지 말라. 이곳 승리제단에 오지 않는 한 그대들은 결코 인간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다. 이슬은혜 없이 결코 도를 이룰 수 없다. 빨리 자존심을 버리고 구세주 앞에 무릎 꿇어라. 그것만이 그대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대도(大道)를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 본부제단 5월 성적 시상

## 1지역, 2013. 11월 이후 18개월 만에 1등



1지역 박경옥 지회장이 1등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 5월 성적 시상이 6월 9일 구역장회의에서 있었다. 윤봉수 회장은 “이번 성적은 정말 대단한 실적이다. 제단 수리비 마련을 위하여 3배로 배정이 된 이번 절기 성금에서 현재 목표금액의 99%를 달성하였다. 1~4지역이 이미 달성하였고 5지역도 6월에는 꼭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본부제단은 100%를 초과하게

된다. 1지역과 2지역의 분발은 실로 대단하다. 1지역이 1등을 차지한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자유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냥 어영부영 기복신앙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먼저 나온 것 소용없다. 우리주님은 6,000년 만에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주인이시다. 74년간 입고 역사하시던 육신은 분신체에 불과한 것이다. 주님은 영원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생명체로 지금은 인간의 몸을 벗으신 것이다. 주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나를 죽이는 데 매진하자”라고 당부하였다.\*

- 지역 1등: 1지역(지역장 김중만, 지회장 박경옥)
- 지역 2등: 2지역(지역장 강중태, 지회장 김혜선)
- 지역 3등: 4지역(지역장 윤봉수, 지회장 이영애)
- 구역 1등: 이숙정 9구역장
- 구역 2등: 강중태 16구역장
- 구역 3등: 안경미 11구역장
- 개인 1등: 신불선 장로
- 개인 2등: 신순이 권사
- 개인 3등: 강중태 승사